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긍정적 태도의 기초 성경: 누가복음 12장 13-21절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고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12:13-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 태도를 주셨다.

그리고 세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철한 태도도 같이 주셨다.

이 두가지 상이한 태도는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들이다.

만약 이런 가르침이 베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빼딱하거나, 반항하거나, 교만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부정적이거나, 무미건조하거나 까칠하다.

우리는 오늘 이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

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여전히 부정적이고 뼈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가르침들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냉철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도 여전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습관이고 훈련이다. 부주의는 그 손해가 막대하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주의해야 할 가르침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매우 세심하고 강력한 적극성이 없이는 얻기 힘들다.

바알셈과 코즈커 이야기

이 두가지는 시이소와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건강한 삶을 장담하지 못한다. 균형을 잃은 배는 침몰하듯이, 균형을 잃은 태도 또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인생의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교훈에 대해서 그토록 냉철한 태도를 강조했을까? 첫 번째 가장 많은 횟수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배격이다. 우상숭배에 대한 배격 만큼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강조하였다.

6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렘25:6)

두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한 교훈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다. 사실은 우상숭배의 목적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그 맥락이 같다. 탐심에 대한 공격은 곧 우상숭배의 정신에 대한 공격이다.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마도 이 친구는 탐심이 가득한데, 그 속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재산분배라는 정의를 빙자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교훈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교훈이다.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렘5:21)

우상숭배와 그 정신이 정리되지 않는 영혼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리고 보이기 때문이다.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굶은 길로 가게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다. 부자치고 성실치 않는 자는 거의 없다.

-이 부자는 주도면밀하고 지혜로우며, 실물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소작이나 작은 농부가 아닌, 거물급 농부에 해당된 자였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고, 마침내 뜻밖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는 차고 넘치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넉넉하게 베풀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더 큰 재산과 더 큰 경제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재산이 재산을 만든다. 많은 돈은 큰 산업을 가능하게 하고 큰 산업은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쯤 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산업을 맡기면 자신은 향락에 빠져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벌리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는 우상숭배의 정신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이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의 태도와 삶에 대한 모든 것은 아무 흠을 잡을 만한 것들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사람의 태도를 잘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또 충분할 정도의 물질을 항상 쏟아 부어 주시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잘 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못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저 부자들이 내 돈을 갈취해 간다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부자에게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재물을 분배할 것인지를 연구할 책임도 있다. 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지혜도 있다.

-줄부들은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큰 부자인 줄로 착각하고, 지혜의 용도를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지킬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고, 저 가난한 자들은 죄가 많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도와 주어도 그때 뿐이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악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줄부일 뿐이다. 진짜 부자는 그렇지 않다.

-다만 그 부자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치더라도 그는 부의 목적의식에서 실패한 자이다. 그는 왜 부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는 단순히 부를 향락에만 사용하려고 하였다. 향락중심의 삶은 부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삶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재물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재물에 치심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 왜냐면 그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영혼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며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성경이 말하는 부자 말씀: 잠10:13-25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3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10:13-25)

세상에서 가장 간지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만족할 것인가?

빨리 잘하고 끝까지 만족하는 사람도 좋겠지만, 천천히 하면서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더 큰 만족을 얻는다.